

다이와보 - “에어 컴팩트” OE사 다양하게 개발

다이와보는 2003년 12월~2004년 1월에 걸쳐 OE 방적 설비로 특징 있는 원사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이 원사는 OE의 파ioni어(pioneer)로서 이 업계에서는 제1인자임을 자부하고 있다.

다이와보는 2004년 춘하절 상품부터 “에어 컴팩트(Air compact)”라는 상표의 원사로 다이와보 텍스타일 부문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텍스타일을 고객에게 제안하고 있다.

다이와보의 개발 원재부에 의하면 에어 컴팩트는 어패럴 컨버터(apparel converter)의 반응이 좋으며, 특히 재킷(jacket), 보텀(bottom), 셋업(setup)의 패션 아우터용 직물 소재로서 고객을 순조롭게 통과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 에어 컴팩트의 방출 변수는 면 100% 실에서는 10수, 16수, 20수, 24수, 36수의 단사가 대부분이고, 혼방사로서는 면 80%·마 20%의 24수 단사, 면 80%·모 20%의 30수 단사, 면 90%·실크 10%의 24수 단사 등을 차례로 생산하고 있다.

현재는 면 100%의 “에어 컴팩트”가 이미 생산되고 있는데, 2004년 4~9월의 생산 판매 실적은 300곤(梱)이다. 2004년 10월부터 2005년 3월까지에는 600곤으로 생산을 증가시킬 계획을 세우고, 자가 소비의 텍스타일 외에 시판사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4년 하반기 계획에서는 직물 텍스타일 외에도 니트 텍스타일의 T 셔츠나 이너용으로 생산 컨버터와 다이와보가 각기 두 번 선별하는 방식으로 제

휴선의 선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 “에어 컴팩트”의 특징은 가벼움, 높은 균제도, 높은 내마모성, 벌키(bulky)하면서 볼륨한 감 등의 캐주얼 하면서도 리치한 질감을 들 수 있으며, 특히 가공으로 천의 태가 소프트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단히 발색성이 좋고, 보다 클리어하고 비주얼한 색이 나오는 것도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이 원사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다이와보 머티어리얼즈(Materials) BD 32대(6,400로터)와 오토 코로 15대(2,736 로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에어 컴팩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정방기의 개조나 원재료(솜)의 정선(精選), 공정 관리 등을 약 6개월 동안 연구하여, 비로소 시방하기에 이르렀다. 결과는 양호하여 그런대로의 성공이라고 보고 있다. 2004년 추동절에는 다이와보 본사의 텍스타일 사업 추진으로 에어 컴팩트를 사용한 텍스타일을 확충하고 진화시켜서 상품을 다양화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더욱 OE사의 세번수화도 연구 과제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